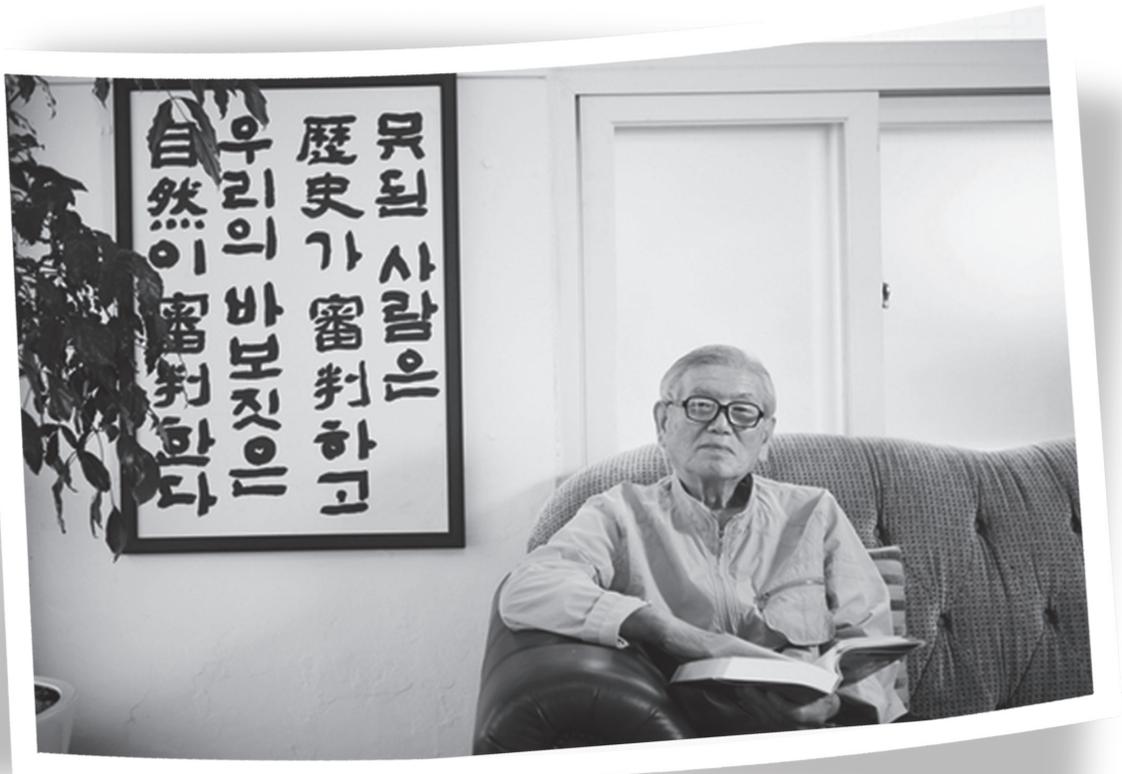


우리의 바보짓은 아름답다

故서한태 상임고문 4주기를 기리며



목 차

02 특별기고

03 현안활동

05 해양환경

06 식목일 캠페인

07 회원기고

08 에코리딩 독후감

09 활동보고

11 회계보고

13 환경영화 / 서적

14 환경상식

15 생태기행 안내

16 신입회원 안내 / 광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글 / 김경완 (해양갯벌위원장)

의사로서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환경운동가로 더 잘 알려진 서한태 박사님(1928~2018)의 4주기를 맞았다. 박사님은 무안에서 태어나 목포와 광주에서 학교에 다녔고, 군 생활을 제외하고는 목포에서 한평생을 사셨다.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박사님은 의사로서 존경받으며, 얼마든지 양지에서만 지낼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그때 스스로에게 자문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였다.

‘환경운동’이라는 말 대신 ‘공해추방’이 보편적으로 쓰이던 1983년 가을은 엄혹한 시절이었다. 1981년 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전두환은 그 전해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발포했을 뿐만 아니라, 맘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 고문을 하던 때였다. 이런 시절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은 목포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는 ‘영산강 주정공장’ 건설을 치열하게 반대하며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옳다면 여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박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고 회고하셨다. 어떤 절대적인 힘과 위로가 필요했을 만큼 힘들고 외로웠으리라. 그때 박사님은 큰 힘을 얻고, 결국 목포시민들의 힘을 결집해 식수로 사용하는 영산강의 오염을 막을 수 있었다. 덕분에 시민들은 처음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엉망진창이 되고 아귀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까? 박사님은 평소 책을 손에서 떼지 않으셨고, 말년에는 돋보기안경을 쓰시고, 손에는 또 다른 큰 돋보기를 들고 책을 읽으셨다. 무엇보다 『논어』를 수십 번 읽으시면서 그 내용에 공감하고, 감탄하시며, 우리들에게 자주 전해주셨다. 박사님은 ‘見得思義(견득사의)’ - ‘어떤 이익이 있을 만한 일을 만나면 그 일이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 를 일상에서 실천하셨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박사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면서도,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에 더 방점을 두셨는지 모른다.

후배 의사들이 입원한 환자들에게 인스턴트가 포함된 식사를 제공할 때 그래서는 안된다고 호통을 치셨고,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제염이 사용될 때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정부의 물관리일원화를 꾸준히 제기하셔서 성과를 얻었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장관들이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정말 중요한 환경문제를 도외시한다고 호통도 치셨다. 이럴 때는 싸움꾼으로 비친다고 해도 개의치 않으셨다. 박사님은 옳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는 늘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신 분이다.

박사님은 인간적으로도 매력 있고 멋진 분이였다. 1962년 오거리에 ‘서방사선과의원’을 개업했는데, 환자들 중에는 섬에서 어렵게 올라온 분들이 많았다. 보통은 4장의 X레이 사진(전후좌우)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박사님은 비용을 줄여주려는 마음으로 한 장만 찍었다. 대신 더 정성껏 판독을 해 주었다. 동료 의사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한심한 표정을 지었음에 틀림없다. 돈을 버는 것 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박사님의 진면목이었다. 박사님은 마지막까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며, 베푸는 삶을 누리시다가 떠나셨다. 그 뜻과 사랑을 후배들이 잘 이어서 다시 이 사회에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 호텔 반대 현수막 게시 불허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1일과 13일 성명을 내 목포시의 시장 마음대로의 행정지시를 규탄하며 불법적 행정지시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목포시는 보도자료(1.19.)를 통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통상 접수 후 2주 ~ 3개월 후이나 게첩이 가능할 정도로 게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때문에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느니, 단체, 개인, 정당 등의 일반 현수막 게첩을 허용할 경우 소상공인 게시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느니 하면서 앞으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는 오로지 상업광고만 허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식 시장은 이성을 찾아 행정을 펼치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구차한 변명과 몽니 가득한 옹고집으로 답을 한 것이다. 목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목포시 관련 조례 어디에도 상업용, 행정용이라는 구분이나 단어는 없었다.

‘상업용’이라는 기준을 애써 만들어 이번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게시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억지려니와 형평성, 반대 민원 등을 운운하며 줄줄이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은 불법과 탈법, 독선과 몽니를 미화하기 위한 거짓과 치졸함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삼학도 민자호텔 건립사업이 목포시의 주장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목포시민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사업이라면 최우선으로 시민들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이 우선이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법과 조례에도 없는 말을 차용하여 겁박하는 것은 비겁하고 옹졸한 행동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게첩비용도 문제다. 목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일 기준 1만 4천원 (수수료 3천원, 게첩비용 1만1천)이라 했지만, 실상은 수수료 4천원, 게첩비용 1만원이며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형식이어서 국민운동본부는 신청 시(4천원×10장×2회)8만원을 지불하였다. 상식적으로 게첩할 수 없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줘야 하는데도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일방적인 게첩 거절에 환불까지 불가라니 이것이 될 말인가? 목포시가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런 부조리한 일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목포시 조례는 물론이고 상위 법률, 시행령까지 살펴봐도 현수막과 관련한 목포시의 최근 행태는 다분히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것이었다. 김종식 시장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라도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과거의 사전검열식 행정을 철회하고, 게시대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순서에 맞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부러 없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눈과 귀로 막으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아도취, 자가당착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2022년 01월 15일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삼학도 호텔 건립 반대

현수막 게첩 관련 진행일지

동절기 대비 삼학도 호텔 반대 홍보 방식(일인시위 → 현수막 게첩) 결정

12월	24일	현수막 게시대 10곳 선정 후 현수막 요청 (10일 연장 20일 게첩)
01월	05일	의뢰 업체로부터 행정예 반하는 내용의 게첩 불가 통보
	06일	목포시 옥외광고협회에 사실 확인과 항의 통화 (바로 7일부터 게첩약속)
	11일	[1차 성명서] 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12일	목포시 건설과 광고물팀 옥외광고물 협회에 지침 공문 발송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련 협조요청 - 상업용, 행정용 이란 표현 사용 (상업용은 지역상인을 위해서만 게시 가능) - 사실상 정당정치인, 일반개인, 단체 등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게시 접수와 설치 불가 - 추가 게시대 설치 후 가능 ※ 현재 순차적 게시 예정인 10개 중 3곳만 게시된 상태이고 이후 기간 경과 후 불가 (추가 7곳 게시 불가 방침 통보)
	13일	[2차 성명서] 김종식 목포시장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김종식 시장! 불통, 독선, 꼼수 행정에 이어 몽니 행정까지 [정보공개 청구] 최근 1년 게시대 현수막 문구 요청
	19일	목포시 보도자료 배포 -소상공인 게시공간이 부족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광고만 허가할 것
	25일	[3차 성명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26일	[정보공개 청구] 최근 1년 게시대 현수막 문구 요청(추가요청)
현 재		명확한 규정도 없이 시민단체를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포시의 무소불위의 불법행정에 관한 행정소송, 심판 등 진행 준비



해안쓰레기의 문제

글 / 편집부

코로나19 발생 이후 1회용품 사용의 급증에 따른 쓰레기 발생 문제와 해양환경 파괴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해양쓰레기는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3년간 36만 7742톤을 수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작년에는 1079억으로 최고치를 이뤘습니다.

2018~2020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국내 연안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평균 83%(개수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유형(개수 기준)은 음료수병, 뚜껑 등 경질형이 26.2%로 가장 많았고, 스티로폼 부표 등 발포형이 20.7%, 어업용 밧줄 등 섬유형이 17.1%, 비닐봉투 등 필름형이 11.8%를 차지했습니다.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개수 기준으로 전체 해안쓰레기의 1.3%, 무게 기준으로 4.1%이며, 중국에서 온 쓰레기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진행하고 있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이외에 지속적으로 인근 신안지역 섬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2021년 하의도, 신의도 쓰레기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의 확산등의 영향으로 안타깝게도 계획했던 다른 섬들의 모니터링이 중단됐습니다. 2022년 올해는 연륙된 섬의 쓰레기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신안군에 현실적 해결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섬쓰레기 모니터링 참가자 모집 |

자은도·암태도 : 3월 중 압해도 : 4월 중

※ 문자(010-8243-3169)로 신청해 주세요.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매일이 식목일처럼, 날이 즐겁게

3월 21일 '세계 산림의 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 강풍으로 인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부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에서 진화작업에 나서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불길은 서울 면적의 1/4인 1만5000ha이상(산림청 추산)의 산림을 훼손하고, 동식물을 비롯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불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 기온이 오르면 토양 수분이 더 많이 증발되어 상대습도가 낮아지고, 나무들도 바짝 말라 산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식목일이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가 등장하기 전에는 나무 장작을 주로 썼습니다. 땀감으로 나무를 많이 베다보니 민둥산이 많아져서 나무 심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학교와 관공서 단위로 나무를 심었고, 1949년 대통령령으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습니다. 식목일은 절기상 하늘이 맑아지는 '청명'인데요. 청명은 언 땅이 녹아 나무가 자라기 좋고, 촉촉하게 땅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꽃아도 싹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 나무 심기 좋은 기온은 땅이 녹은 직후로 6.5℃인데요. 해마다 기온이 오르면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요. 전남은 3월 초순에서 4월 초순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식목행사는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네브래스카 주에서 한 개척민이 산림이 험벗어 있는 것을 보고 산림녹화운동을 시작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1872년 3월 22일 '나무의 날'로 정했다가 지금은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바꿨습니다. △독일은 4월 25일을 '나무의 날'로 정해서 지역별 나무심기 등 산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여 7월 28일 전국의 학교에서 식목일을 실시했고, 이후 국가 전체적으로 7월 30일에 식목일 행사를 합니다. △일본은 '녹색의 날'로 5월 4일에 전국적으로 식목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의 식목일은 평소 청명절에 나무심기를 독려한 쑨원의 서거일로 3월 12일입니다. 주로 등산을 하거나 나무를 심고, 봄을 답사합니다. △북한의 식목일은 김일성이 가족과 함께 모란봉에서 나무 심은 날인 3월 2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식목일이 있는데요. 2012년 5월 10일 제정된 바다식목일입니다. 바다에서 나무 역할을 하는 해조류 번식 활성화, 바다 생태계를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식목일을 맞이하여 매일이 식목일처럼 반려식물을 키워보는 것은 어떤가요? 식물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에너지를 담백 받아봅시다.

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는
<식목일 맞이 우리집에 작은 화단 만들기> 캠페인
우리 꽃 씨앗을 나눕니다:)



과꽃 채송화 봉선화

☛ 신청 기한 : ~3월 31일까지(선착순 50명 한정)
☛ 신청 방법 : 사무국 010-8243-3169 문자 신청



제로웨이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동

글 / 라보림 (지구별서점)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원도심에서 지구별서점이라는 작은 동네서점을 운영하며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숲교육을 하고 있는 라보림입니다.

서점을 시작하기 전에 오래 다닌 직장에서 청소년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했는데요. 연속해서 맡게 된 일이 '환경교육'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환경, 생태 체험 활동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전문기관을 찾고, 강사님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생태에서 나아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시점부터 주변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후변화와 위기를 느끼며,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관련 책을 읽고, 청소년들과 환경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환경운동에도 관심 갖고, 시도하며 노력한 게 기억나네요. 당시 만난 숲체험 선생님은 제가 기후환경 문제에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고, 자연에서 온 자연물을 활용해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멋있어서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퇴사 후 서점을 준비하면서 이 서점이란 공간에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했고, 천천히 실천을 해 나갔습니다.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았기에 환경, 생태, 기후에 관한 책을 입고하여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코너를 만들고, 폐현수막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책싸개와 제로웨이스트 물품(비누, 대나무 칫솔, 고체치약)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동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활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 청년들과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함께 천연치약과 바다에서 주운 유리조각으로 수경재배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와 환경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자는 의미로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는 생활습관(라이프스타일, 환경운동)으로 개념화되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을 대체하는 자연친화적 제품들이 다행히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들이 늘어나 기쁩니다. 실천을 하려면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어야 실천합니다. 처음 시작은 주방이나 화장실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로웨이스트 물품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봐도 좋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것은 지금까지 편리했던 행동 습관을 바꾸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위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 속도에 맞게 일상을 들여다보고, 하나씩 바꿔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인 실천과 함께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로웨이스트 교육



플로깅



지구가 직면한 문제이자 도전, 쓰레기 쓰레기의 정치학

글 | 송예희 에코리딩 동호회

자원이 되는 폐기물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품이 되기도 하고 자원이 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의류 산업을 위협하는 '기부'로 들어오던 중고 의류 선박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치 있는 폐기물이 모두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이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 폐기물경제에서 더 이상 남쪽 국가들이 북쪽 국가가 버린 폐기물의 수동적인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들은 폐기물 재처리 및 사용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한다.

폐기물경제의 도전과제

수백만 명이 폐기물 수거와 처리로 생계를 이어간다. 재활용, 재처리 및 재판매까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는 독소와 오염물질에 상당히 노출된다. 이러한 위험은 빈곤층, 소수 인종 등 소외된 지역사회에 집중된다. 생계는 단순 소득 창출의 개념 이상을 포함한다.

폐기물경제에서 취약계층을 향한 위험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공유되는 방식으로 폐기물 자원을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순환경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순환되지 않으면 자원의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고자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전자제품 폐기물 관리 접근을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더 나은 제품 설계를 장려하여 폐기물 생산을 줄이는 것을 목표를 두었고, 스웨덴 정부는 제품 수리 업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리권 보장 운동'을 통해 소비자가 수리해서 쓸 권리를 강화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식지에 올리고 싶은 글이 있으면 사무국(061-243-3169)으로 연락주시시오



- 03일(월) 시내버스 공영제 축구 회원 참여 독려 카톡발송 / 유수지 쓰레기 줍기활동 회원 문자발송
총회자료집 준비 / 총회선물 마스크 주문, 시안요청
- 04일(화) 외부회계감사 제출서류준비 / 조각공원 조명관련 수목 성장조사
- 05일(수) 금융조회서 우편발송 / <함께사는길> 잡지 구독조사 / 제4차 총준위회의
- 07일(금) 전남환경네트워크 새활용 토론회 논의
- 08일(토) 유수지 인근 화물주차장 경계 청소(20명)
- 10일(월) 성명서작성 / 총회 준비 / 소식지원고 수정 / 동호회 계획서 수정 / 민원인 업무지원(달리도)
- 11일(화) 자원순화와 새활용 토론회 계획 논의 / 제5차 총준위회의
성명서 발표(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마라) / 6.15 집행위회의(OZ)
- 12일(수) 목포나눔인권센터, 청소년직접행동 캠페인 등 활동관련 면담
- 13일(목) 소식지 원고 수정 / 성명서 언론사 배포(김종식 목포시장은 이성을 찾아야한다)
총회자료집 준비(우편발송 희망자 조사) / 사업감사(2021사업, 2022계획 전반)
- 17일(월) KBC 인터뷰(삼학도를 생태공원으로, 목포시 계시대 현수막 계획 관련)
신흥초, 대연초 석면 모니터단 참여 / 생태환경교육 지원단 역량강화 직무연수 줌 강의
- 18일(화) 중앙위원회 온라인 회의 / 소식지 우편발송(533통) / 외부회계감사(회계전반) / 석면교육 / 소통과연대회의
- 19일(수)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목포 운영위원회 4차(전교조 전남지부)
보도자료 배포(서산·온금 재개발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20일(목) 제24차 집행위원회 / 목포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서산·온금) 소통과연대 참고의견서 전달
새활용토론회(전남환경네트워크) 준비회의
- 21일(금) 기후위기와 탈핵 공동포럼 -20대 대선 기후정의의 눈으로 탈핵을 말하라
삼학도 현수막 관련 보도 SNS공유
- 24일(월) 총회관련 서면결의서 안내(온라인) / 신흥초등학교 석면 모니터단 참여
- 25일(화) [성명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계시대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 26일(수) 제26차 정기총회(온라인) - 만인계 웰컴센터 2층
- 27일(목) 정기총회 회의록 작성과 경품 당첨자 명단 정리 / 설명절 인사 회원 문자 발송
새활용 토론회 웹자보 수정작업 / 사단법인 전환 4대보험 변경 신청서 제출

· 01월 04일(화) 조각공원 조명관련 수목 성장조사



· 01월 08일(토) 유수지 인근 화물주차장 경계 청소



· 01월 24일(월) 신흥초등학교 석면 조사



· 01월 26일(수) 제26차 정기총회(온라인)





2월

- 03일(목) 정기총회 당첨자 경품, 2월 합길 발송
- 04일(금)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진도 하조도, 해남 목동리)
- 07일(월) 비영리민간단체 계좌 사단법인 명의변경 / 국가하구 4대강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 출범식 참여와 대선후보자 국정과제(안) 전달식 / 건강보험공단 사단법인 전환 가입 완료
- 08일(화) 조각공원 조명 관련 수목 성장 영향 조사(공원녹지과 공동) 새활용 토론회 자료집 원고 정리 / 615목포지부 총회 / 계좌별 카드 명의변경 신규등록
- 09일(수) 양왕산 앞 용해3단지 재개발 관련 민원 접수 / CMS신규 등록 관련 서류 작업 / 전남국처장단 회의 온라인 참여
- 10일(목) 새활용 토론회 자료집 수정, 점검회의 / 용해3단지 재개발 사업 인근 민원
- 11일(금) 금융결제원 CMS 신규등록 KB국민은행 계약 / KBS1 강·바다 관련 다큐 인터뷰 (최송춘 의장)
- 14일(월) 목포시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전남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9층) / 용해3단지 재개발 사업 인근 민원인 면담 / 팽목항 이행강제금 통지 규탄 및 팽목 기억공간조성 촉구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15일(화) 2030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회의 / 금융결제원 관련 서울보증보험 가입 법인카드번호 연결계좌 등록
- 16일(수) 2022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계약서 우편 발송
- 17일(목) 사단법인 정관 변경·신청(전라남도)
- 21일(월) 서산·온금 재개발 지역 현장 방문 / 용해3단지 재건축 관련 민원 현장 방문 / 에코리딩 모임
- 22일(화)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인근 레미콘 업체 이전 관련 민원 현장 방문 / 전남NCC신학회 온라인 교육(삼학도 호텔 문제와 환경)
- 23일(수) 홈페이지 정관 신규대조표 업로드 / 집행위회의 준비

· 02월 07일(월) 국가하구 4대강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 출범식 참여와 대선후보자 국정과제(안) 전달식



· 02월 14일(월) 목포시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02월 14일(월) 팽목항 이행강제금 통지 규탄 및 팽목 기억공간조성 촉구 기자회견



· 02월 21일(월) 서산·온금 재개발 지역 현장 방문

(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대신아이시티(주)/더오래들/만인계마을기업/목포대성신편/영암일보(주)/우진건설/코롬방제과점/특허사무소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게스트하우스달꾸메/감의갑(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석원/강선애/강성희/강영규/강영두/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광현/고성철/고윤혁/고정화/공남은/곽신영/곽용열/곽재구/구봉선/권가별/권수한/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민/김경숙/김경완/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대현/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지/김병옥/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진/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순미/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민/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유경/김윤임/김은미/김일용/김장원/김재민/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중수/김주재/김지수/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우/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형용/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효정/나광봉/나양명/나연운/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재청/마흥식/무원중/무관/문보현/문성중/문승현/문원규/문정임/문지영/문호/문호산/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경재/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대현/박동구/박동환/박문옥/박미덕/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상현/박선옥/박성수/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세륜/박순미/박안섭/박영운/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선/박종수/박종위/박지현/박진/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배영식/백동진/백성숙/백재봉/변옥숙/변재영/서경수/서병권/서연순/서영선/서영숙/서영옥/서정/서정만/서한배/설단숙/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손민원/손보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우/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원/신원호/신현령/신형배/안명희/안수경/안정배/양덕수/양수민/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환/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문환/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오영철/오왕근/오재록/오하늘/오현주/우성주/위준철/유경호/유기성/유영근/유영순/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경/유은숙/유주훈/유지원/유혜정/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윤인수/윤종인/윤종일/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방수/이봉섭/이상엽/이성호/이성환/이송환/이수/이순용/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환/이승희/이영숙/이영주/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종환/이주연/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이충완/이학승/이현숙/이현승/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형주/이혜령/이혜용/이화/임경숙/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재형/임지현/임진욱/임창욱/임태삼/임혁/임효철/장관호/장근천/장근현/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유선/장이주/장이진/장재구/장지은/장진실/장항금/장희웅/전경남/전경란/전남실/전대열/전상보/전성철/전양수/전용원/전준수/전형숙/정고운/정동욱/정병이/정상문/정성배/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옥례/정우영/정유나/정유미/정윤나/정윤안/정윤정/정인성/정인숙/정일/정일승/정재근/정종하/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철희/정현찬/정형권/정형석/정효준/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재문/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지이화/진선화/진성필/진지연/진택근/차선미/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승주/최순재/최승운/최승희/최양선/최영란/최영숙/최영식/최영철/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은규/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진철/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호봉/최화녕/최환석/추연성/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행복한밥상/허상진/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성혁/홍세영/홍정우/홍택욱/황미숙/황민수/황선주/황순진/황형수/황혜미

회비 납부
01~02월
2022년

수 입		금 액
항 목		
회 비	개인회비	6,516,000
	단체회비	240,000
소 계		6,756,000
사업수익		80,000
후원금		880,000
기타수익		30,000
이자수익		0

01월

- [후원금] • 뜨개마루 1만원
 • 후원회원 15만원
 • 신형당(신형배) 5만원
 •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39만원
 • 지구별서점 3만원
 • 디자인 그리다 소식지 후원금 25만원

[사업수익] • 해양갯벌위원회 8만원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3만원

당월수입금	7,746,000
전월이월금	7,726,629
합 계	15,472,629

지 출		금 액
항 목		
사업비	교육사업	72,000
	조사연구	80,000
	홍보비	0
	행사비	0
	연대사업	609,860
소 계		761,860
회의비	총회비	2,048,000
	위원회비	186,500
소 계		2,234,500
인건비	급여	6,009,760
	복리후생비	1,324,400
	상여금	2,265,740
	퇴직적립금	511,066
소 계		10,110,966
업무추진비	출장비	36,800
	활동비	80,000
소 계		116,8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40,000
	도서인쇄비	500,000
	통신광열비	598,520
	소모품비	27,000
소 계		1,165,520
기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0
	보험료	100,000
	사무국 이전기금	0
	사단법인운영비	0
	지급수수료	406,660
소 계		606,660
당월지출금		14,996,306
통장 잔액		476,323
합 계		15,472,629

수 입		금 액
항 목		
회 비	개인회비	7,826,000
	단체회비	395,000
소 계		8,221,000
사업수입		0
후원금		220,000
기타수익		1,006,673
이자수익		0
예비비		0

02월

- [후원금] • 고삼석 2만원
 • 후원회원 15만원

[기타수익] • 사단법인 운영비 통합 100만원
 • 국민카드 포인트 6,673원

당월수입금	9,447,673
전월이월금	476,323
합 계	9,923,996

지 출		금 액
항 목		
사업비	교육사업	322,000
	조사연구	0
	홍보비	70,900
	행사비	0
	연대사업	366,640
소 계		759,540
회의비	총회비	53,180
	위원회비	131,000
소 계		184,180
인건비	급여	6,019,340
	복리후생비	1,013,300
	상여금	0
	퇴직적립금	0
소 계		7,032,640
업무추진비	출장비	90,000
	활동비	60,000
소 계		15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350,000
	도서인쇄비	36,000
	통신광열비	323,070
	소모품비	47,000
소 계		756,070
기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79,720
	보험료	144,700
	사무국 이전기금	0
	사단법인운영비	0
	지급수수료	490,570
소 계		814,990
당월지출금		9,697,420
통장 잔액		226,576
합 계		9,923,996



태양을 덮다

다큐멘터리 | 90분 | 2021년

2022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참사 11주기 되는 날입니다. 탈핵 없이는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참사 11주기를 되돌아보며 원작 2016<태양의 덮개>를 90분 분량으로 재편집되어 개봉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10년 전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을 압축적으로 다룬 재난영화입니다.

정치부 기자인 나베시마는 지진과 정부의 대처를 취재하던 중,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챈다. 어렵사리 얻어낸 정보는,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냉각장치가 멈추었다는 것! 그러나 정보는 제한되어 있고 정부의 대처는 답답하기만 하다. 직접 도비(東日)전력 원자력부에 몸담았던 요코하마씨를 찾아내 취재하는 나베시마.

그러나 그가 말해주는 진실들은 더욱 놀라운데... 패닉에 빠져버린 정부 관계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혼란, 그 날들의 기록.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

이동호 지음 | 창비 | 2021년 06월 01일 출간

식탁 위의 고기가 아닌 살아 있는 돼지와 함께한 1년
동물을 키우고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가 주최한 '제8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가 출간되었다. 전직 군인이자 여행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저자 이동호는 스물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농촌으로 이주한다. 귀촌 후 축산 동물과 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목격한 저자는 채식을 시작하지만 여러 의문이 뒤따른다. 인간은 잡식동물로 태어났는데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동물을 학대하는 축산 방식이 문제라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자연의 섭리' 아닐까? 저자는 이런 질문을 품고 마당에서 돼지 세마리를 직접 키워보기로 한다. 긴박감 넘치는 돼지 사육 현장부터 외면하고 싶은 돼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편의 드라마가 이 책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인간은 다른 생명을 취해 먹고 산다. 저자는 마당에서 돼지를 기르며 우리가 먹는 생명의 고귀함과 자연의 아름다운 순환을 배우고, 동물을 키우고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한다. 나아가 값싼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의 실태, 대규모 축산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고민을 확장한다.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에는 펄떡이는 힘과 유머가 가득 찬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던지는 묵직한 문제의식이 눈부시게 어우러진다. 채식을 고민하는 이부터 육식을 사랑하는 이까지, 이 땅의 동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을 취해 먹고 산다. 저자는 마당에서 돼지를 기르며 우리가 먹는 생명의 고귀함과 자연의 아름다운 순환을 배우고, 동물을 키우고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한다. 나아가 값싼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의 실태, 대규모 축산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고민을 확장한다.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에는 펄떡이는 힘과 유머가 가득 찬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던지는 묵직한 문제의식이 눈부시게 어우러진다. 채식을 고민하는 이부터 육식을 사랑하는 이까지, 이 땅의 동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다.



책과 영화를 보고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로 돌아온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알아보기

일상 속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와 물건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기에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행동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했어요. 환경도 지키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푸루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혜택으로 돌아온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설, 혹한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요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 관련 용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탄소중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탄소중립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2018년 발표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 상승했으며, 1.5℃ 이상 상승할 경우 인류와 모든 생명체가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다가올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월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했어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실천활동은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간편하게 발급받기, 리플스테이션에 방문해서 화장품/세제 리필받기, 다화용기를 사용해 배달받기, 무공해차 대여하기,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하기 등 6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은 줄이고, 포인트는 늘리는 혜택을 제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활습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동실천 항목에 있는 6개 활동에 대한 이용실적이 있는 일반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각 항목 이행을 통해 부여된 포인트는 현금 혹은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누적 포인트는 다가오는 4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인 포인트는 22년 5월에 한 번 일괄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월별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실천 항목에 따른 포인트 부여 체계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6개 활동과 실천 항목에 따른 포인트 부여 체계		
구분	단가	연간 최대 지급액
전자영수증	100원/회	10,000원
리플스테이션	2,000원/회	10,000원
다화용기 (환경부 MOU 배달앱 2개)	1,000원/회	10,000원
무공해차 대여	5,000원/회	25,000원
친환경제품 구매	1,000원/회	10,000원
미래세대 실천 (어린이, 청소년)	상장 및 상금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가입 방법?

- ▶ 하나!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https://cpoint.or.kr/netzero/>)을 통해 가입 신청한다.
- (6개 실천활동 중 1개이상 참여실적이 있을 경우 실천다짐금 5천 원 지급)
- ▶ 둘!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을 거친다. ▶ 셋! 회원가입 후 위 6개 활동 생활실천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한다.
- ▶ 넷! 포인트를 수령해 각종 혜택을 누린다. (1인당 최대 7만 원)

간단한 생활 속 실천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께서도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와 탄소포인트 가입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동참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환경사랑!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2022년 시민 · 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목포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녹색연구회」가 주최로 매월 진행하고 있는 생태기행과 환경시사 이슈모임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01 2022년 생태기행 진행 (주제: 도심생태 - 길과 공원)

월 일	장소	내용	비고
03.12	무안군 청호리	주룡나루, 못난이미술관	故 서한태 상임고문 4주기
04.09	입암산	벚꽃길, 갯바위	
05.14	목포진 역사공원	목포의 옛길	
06.11	원도심	민족민주의 길(독립운동 등)	
07.09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연산동 ~ 북항	
08.07(일)	독립영화관	영화감상	목포녹색연구회 창립기념일(08.08)
09.17	노을공원	북항, 맹꽁이 서식지	
10.08	해변맛길1,2길	평화광장-대삼학도	
11.12	해변맛길3,4길	대삼학도-목포수협위판장	
12.10	원도심	원도심 보행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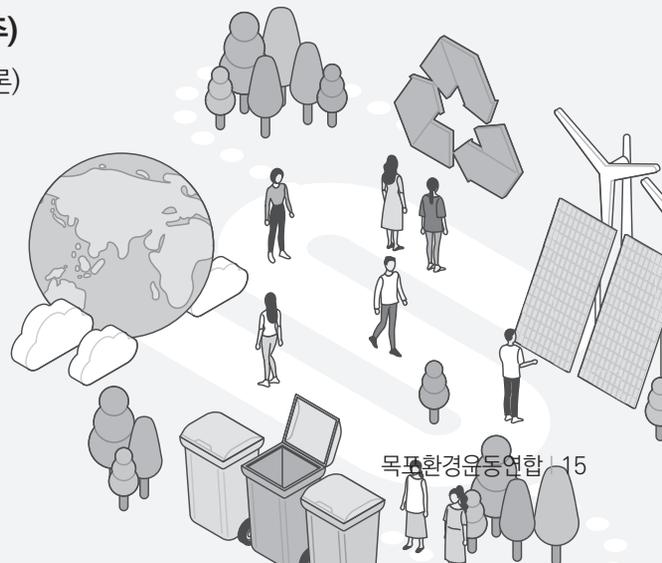
※ 일정표 (두번째 토요일, 아래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02 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시사 이슈모임 진행(격주)

신문, 잡지, 영상 등 환경 및 시사관련 기사 공유(토론)

환경운동연합 밴드·소식지에 소개

문의 : 녹색연구회 010-5649-0419



※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2. 01. 01. ~ 2022. 03. 15.)

신형배(자발적) | 박대현(이경아) | 정상문(최정훈) | 오현자(오현주) | 이화(자발적) | 김은경(임경숙) | 임광희(박갑수)



※ 목포환경운동연합과 강청은
포장재 간소화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물비누 | 세탁용 (1g당) : 8원 고행비누 | 세탁용 (250g) : 1,500원
 | 주방용 (1g당) : 9원 | 주방용 (250g) : 2,500원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가져 오시면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시간 : 평일 (국경일 제외) 9:00 ~ 18:00 ▶ 문의 : (사무국) 010-8243-3169



장바구니를 사용해
지구의 짐을 덜어주세요



김 종 국 회원



포 마 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 은 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 해 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연은 허리가 휩니다.

—
손 현 회원

※ 이미지 참고(환경부)



THE VIEW
뷰가 좋은 카페 더 뷰

010-9290-2924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교로 66-2
OPEN 11:00 ~ 21:00